

장성군 행사·시설 안전관리 '만전'

백양단풍축제 등 취소·연기 읍면별 순찰 강화·관계기관 협업 인파 예상 관광지 안전요원 배치

장성군이 지난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 방지에 나선다. 장성군은 우선 예정되었던 관내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앞으로 치러질 행사와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백양단풍축제

취소에 이어 오는 5일로 예고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축제 연기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은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읍면별로 자체 순찰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지역에 밝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본다. 특히 이태원 사고가 다수의 인파가 한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만큼, 행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양사와 측량산, 황룡강, 장성호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많은 인파가 몰리더라도 방문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양사와 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측에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장성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성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관공서에 조기를 계양하고 전 직원 이 검은 리본을 다는 등 애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운영

'플레이 셀라돈' 연말까지 신청

고려청자박물관이 실감콘텐츠 체험존 '플레이 셀라돈' (사진)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플레이 셀라돈'은 청자에 담긴 이야기와 제작 과정을 소재로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매핑, VR 등 실감콘텐츠 기술을 접목해 아이들이 놀면서 청자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존이다. 지난해 문체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에 선정돼 올해 상반기 콘텐츠와 시설을 구축하고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까지 통과했다. 하루에 총 4회 운영하며 1시간당 30명씩 이용할 수 있다. 전화(061-430-5791)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추후 홈페이지 내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려청자박물관 홈페이지(www.celadon.go.kr) 이용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로컬푸드 야외장터 "주말 금성관에서 만나요" 27일까지 매주 토·일 부스

나주시가 지역 농산물은 만나볼 수 있는 로컬푸드 야외장터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오전 10시-오후 3시) 금성관 앞에서 '로컬푸드 야외장터'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나주시농업농촌진흥재단과 함께 하는 로컬푸드 야외장터는 8개 업체, 20여 농가에서 직접 재배·가공한 30여종의 싱싱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야외장터 인근 나주목문화관 바로 옆에는 한옥 건물 형태의 나주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금남점(사진·금남외곽, 나주시 금성관길17)이 자리하고 있다. 금남점에서는 나주배, 나주쌀을 비롯해 배·쌀로 만든 가공식품, 젓갈, 음료, 채소, 관광기념품(공예) 등 260여종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2층에서는 탁 트인 읍성권을 바라보며 나주배로 만든 음료(에이드) 4종과 나주 농산물을 재료로 끓인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야외장터를 통해 나주로컬푸드 판촉과 더불어 꼭 가볼만한 관광지 홍보를 겸하고 있다"라며 "로컬푸드와 소비자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판촉 이벤트를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소국 활짝 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연못 주변에 아름답게 피어난 소국 주변으로 관광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향촌복지 실무추진단 14명 간담회

'담양형 통합돌봄' 추진 논의

담양군이 '담양형 통합돌봄' 강화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난 1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향촌복지 실무추진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담양형 통합돌봄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공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등 향촌복지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사업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향촌복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등 민선8기 당초 636억원에서 105억원 증액된 741억원을 투입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향촌복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홍희 기자 hdh@kwangju.co.kr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일원.

화순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공모' 선정

도곡면 고인들마을 사업 추진

화순군이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서 고인들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돼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일원에 '고인들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5억원(도비 1억5000만원·군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고인들 문화자원과 연계

한 정겨운 마을 경관개선 사업이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을 통해 노후 주택의 콘크리트 담장과 고체도 지붕 색채 등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들유적지,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들선사체험장, 홍남순 변호사 생가 등 주변 문화자원과 어울리는 관광인프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나주시 이달부터 발주공사 실명제 의무화

1억원 이상 준공 표지판 설치

나주시가 공사현장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 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벌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때문에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형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나주시는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시행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체),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cm×세로40cm)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시는 설계내역서에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며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